

애완용 거북이 조심!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 중인 애완용 아기거북이의 13%가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은 파충류에서 많이 감염되며, 감염되었을 경우 발열·설사·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의 경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1975년부터 4인치(약 10cm)이하 크기의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가정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 감염경로

- 거북이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입을 만지는 경우
- 거북이에게 핏물이나 배설물, 물려 상처가 난 경우
- 감염된 거북이의 배설물 및 수조의 물을 청소할 경우 상처 난 부위

■ 감염방지

- 가능하면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기르지 않는 것이 좋다.
- 파충류를 만진 후에는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는다.
- 5세 미만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파충류와의 접촉을 피한다.
- 유아용시설이나 5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 출산이 예정된 가정에서는 애완용 파충류를 기르지 않는다.
- 집이나 거주공간에서 파충류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지 않는다.
- 감염방지를 위하여 애완용 파충류는 주방을 비롯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파충류의 배설물 및 수조의 물을 갈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한 장갑은 폐기 또는 철저한 살균을 해야 한다. 